

동창회
位相
새로이
定立

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은 오직 과학 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그러한 현실을 위해 지난 총회에서 崔희장이 제안한 1백억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에 찬성할 때, 사람의 총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지동부들은 "그간 지역 동부들간의 교류·우호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진차원에서 유치됐은"을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일을 모았다.

한편 본회는 이번 순방
결과 파악된 支部總長을
토대로 향후 본회와 지방
지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
조관계를 재정립해 나가
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
전국의 주요지부를 모두
순방하여 同窓會史에 일
대전기를 마련하기로 했
다. (巡迴詳報 5面)

에도 전극 협조기로 했
다.

醫科大學 동창회
「同窓의 날」행사

지난달 16일의과대학동창회
창회(會長 姜信浩)에서는
母校醫科大學강당에서「同
窓의 날」행사를가졌다.
金勝煜의대학장 盧實
澤 서울대병원장 및 의대



(66년) 商大卒 △물론들이사
품과 결몰을 내놓고 이다
대회 입상자는 다물과 각
다. △단체우승. 商科大學
△메달리스트. 이선성 33
년 工大卒 76년 △1등
김영호(60년) 嶺大卒 △이
성조 1등. 조성광(63년) 津
大卒 △장타상. 진복영(66
(56년) 工大卒) △근접상.
김기수(51년) 法大卒

文理科大學同窓會(회장 崔永赫)는 지난 13일 오후 6시 회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92년도 총회를 개최했다.

그간 미진했던 동창회 활동에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는崔회장을 비롯, 각계총회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崔회장은 인사를 통해 "그간 동창회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동창잡지》 있지만 오늘 모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이루자"고 말했다.

이어 崔主鎬동창회장과

“재결속으로 母校發展동참” 다짐

최화자의 만장일치로 인
인됐는데 최화자의 취임
인사를 통해 「그간의 직
무유기를 만회한다」는 뜻
으로 일과 부임대가 대환
되어 대한인 묘소를 동양
회화산하의 박사를 가할
것이 일단 다짐했다. 또
장외묘가 인부 사화자
와도 그루 장외묘를 지급
하겠다고 밝힌바 특히 총
동맹회에서 제정한 「대한
기독교회가」의 조선총
유해회장이 만장일치로 장
제정인이므로 할 건 어떤
가 없었다.

한편 이때 만장일치로
부임 부회장을 비롯하여
영개선배 회장 등 영인회
기로 하고 최화자 소파의

師範大學(중국어)의(趙鎬鏞)는 10월 21·28일 양일간 장교장, 부회장, 각市道지회간의 절친한 친구로서 서울로 유수함을 개설했다.

이 모임에서는 각 시도 文會와 科擧의 活動을 보고했으며, 참가자 간의 친분을 강화 하였고, 黃秀恭의 「다

1泊2日間
식사

「同窓會 최고支部」 다짐

蔚山支部 회장에 金周英동문

1천여同門참가, 定期總會개최



◇金周英회장

同窓會 蔚山支部는 지난 11월 21일 경주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원개선과가 주축한 1천여명 참가로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본회 鄭宗澤(宗澤)부회장과 曹興(興)사무처장, 울산지부의 동문들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성황을 이룬 이날 모임에서 鄭宗澤(宗澤)부회장이 主賓을 맡아 祝辭를 낭독했다. 蔚山支部는 1981년 李相周(相周)부회장의 헌신과 동문들의 협조로 그 어느 지부보다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자랑했다. 『세계의 대화로도 웅변하는 母校의 위상에 발맞추어 동창회도』

의 동문들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성황을 이룬 이날 모임에서 鄭宗澤(宗澤)부회장이 主賓을 맡아 祝辭를 낭독했다. 蔚山支部는 1981년 李相周(相周)부회장의 헌신과 동문들의 협조로 그 어느 지부보다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자랑했다. 『세계의 대화로도 웅변하는 母校의 위상에 발맞추어 동창회도』

音大 정기총회 열려

母校오페라「파우스트」 관람겸해

音樂大學同窓會회장 鄭佑賢(佑賢)은 11월 6일 KBS 신관 구내식당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鄭佑賢(佑賢)은 인사말을 통해 『이날 최고의 명문으로 전진해온 서울音大가 이제』

세계속에 든든한 뿌리를 내림으로써 지구촌 도처에서 음대동문들의 눈부신 활약을 빛을 발하고 있다』며, 『母校의 發展은 물론, 오페라 발전을 위해 지속적 인 활동을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母校 金容振(容振)學長, 辛慶



◇경주호텔에서 열린 總會전경

同窓會費 납부실적 好調

신년도 活性化 계획에 靑信號

年末이 가까워지면서 동창회 회장지부 및 동문들의 年會費납부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창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로 회장지부에서 연회비로 인건비 등을 비롯, 각계동문들로부터의 연회비납입총액이 1억 6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괄목할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同窓會費』의 增額과 各部活成化계획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同窓會』사무처에 따르면 『同窓會費』增額과 各部活成化계획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同窓會』사무처에 따르면 『同窓會費』增額과 各部活成化계획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和音으로 同門愛 과시

OB합창단 1회 演奏會

모교합창단 출신 동문들이 모교를 찾아 OB합창단 1회 演奏會를 개최했다. 金德洙(德洙)의 제1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21일 오후 7시 모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동문 및 재학생 3백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지휘자 元鍾洙(鍾洙)을 비롯, 모두 19명의 단원이 무대에 선 이번 연주회에



◇李炳允회장

蔚山支部 지부 定期總會

蔚山支部는 지난 10월 31일 전주 현대호텔에서 李春根(春根)대동창회장, 柳仁相(仁相)本會전부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졸업 35周年 기념 總會

「참여하는 동창회」 決意 다져

醫科大學 11 同窓會(57 年卒業) 회장 李吉女(吉女)는 지난 24일 오후 7시 하얏트 호텔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35주년 기념 總會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美國 하와이에 서 미국거주 동문들과 함께 개최한 졸업 35주년 기념 동창회 및 세미나의 경과보고를 접해 열린 이날 총회는 1, 2부로 나뉘어 1부 경과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2부 여흥의 순으로 진행됐다. 李吉女(吉女)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어려움도 있었으나 동문들의 협조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특히 미국에서 열린 졸업 35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것은 다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개선에서는 朴熙伯(熙伯)동문(의과)의원장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임됐는데 朴熙伯(熙伯)은 취임사를 통해 『간부나 회장만 열심히 일하는 동창회가 아니라 모든 동문이 적극 참가하는 동창회를 만들어』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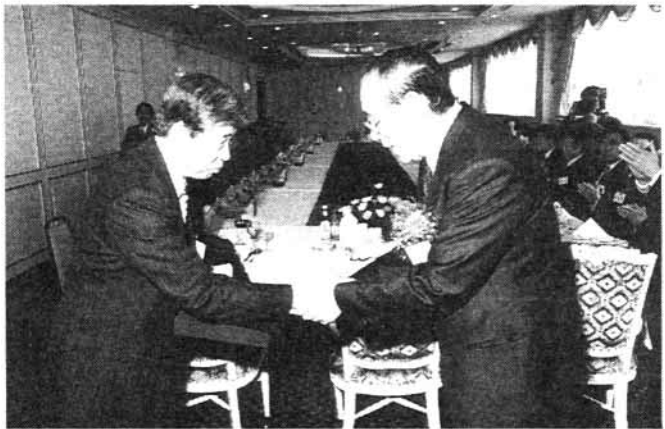
醫大 11 同窓會

임원개선과 학술강연회를 겸해 열린 이날 定期總會에서는 李炳允(炳允)55년차 李吉女(吉女)의원장이 취임사에서 『前회장이 일구어 놓은 동창회를 이어받아 책임이 무거운 만큼 더욱 분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支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主賓을 맡은 李相周(相周)전임회장에 대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이날 총회는 만찬과 여흥을 겸해 오후 9시까지 성대하게 치러졌다.

동양철학을 논하다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논하다
 동양철학발전의 원리를 밝히다
 차의 본부 회장의 말을 듣고
 무언가 커다란 자극을 받는다
 『불교의 진리』를 읽고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불교에 대해
 진리를 깨닫는다
 이 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후 『이제』를 출판한다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할 때 「근면정신」 『현재 모교와 국가』가 전하는 도상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어 해설하는 데는 불모의 열매가 아니라 그 옹근 뿌리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와 안락의 환락과는 서둘러 손을 떼고 부유한 시대 전이기에 부유한 시대가 아닌 「모교의 길」에 정진한다.

全國 6개 지역 방문 연석회의 개최



◆ **崔主鎬**회장등 회장단 일행의 전국지부 순방은 同窓會史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상진〉 제주지부 순방을 마치고, 〈下〉有珍
지부 임원에 대한 감사파 증정.

과학기금 조성 전폭적인 協力확인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할 때 「근면정신」 『현재 모교와 국가』가 전하는 도상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어 해설하는 데는 불모의 열매가 아니라 그 옹근 뿌리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와 안락의 환락과는 서둘러 손을 떼고 부유한 시대 전이기에 부유한 시대가 아닌 「모교의 길」에 정진한다.

동양철학을 논하다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논하다
차와本部 회장의 말을 듣고는
무슨 까닭인지 자극적인
말을 지어내고 말했다. 이
어 불교의 신도인 『불교』
지부나 그 외 사나이를
조선의 불교를 논하다
이 되고 있다』가 처음
후 『이제』에서

支援사업등 크게 늘어

大學·大學院同窓會 활동현황

—92년에 펼친 주요사업의 일과파단

해가 거듭되면서 單科大學 및 大學院同窓會의 活動相이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다. 종래엔 각 동문들에 대한 참여의식과 고취에 역점을 두고 活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92년에 들어서면서 개별 및 소속별로 母校支援를 비롯, 교수연구 지원과 「스승의 날」 행사, 장학사업, 회보발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紙에서는 年末을 결산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뜻에서 各級同窓會가 금년도에 펼친 活動현황을 항목별로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家政大學

- ① 主要行事
▲定期總會: 1월 17일, 뉴원드호텔, ①豫: 決算, ②모교발전지원방안 논의
- ▲停年退任式 및 論文贈呈式: 2월과 8월, 모교 교수회관, 식품영양학과와 李壽美, 李惠秀교수에 記念品 증정
- ▲스승의 날 행사: 5월

看護大學

- ① 主要行事
▲第40회 定期總會: 2월 25일, 서울대병원 A강당, ①장기발전기금 출연자 감사패 수여, ②9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 ▲看護大學 懸板式: 3월 10일, 4백여명 참석, 初代學長에 金梅子교수 추대
- ② 獎學事業
▲獎學基金募金 運動회 바자회: 10월 12~14일까지의 대체육관에서 개최
- ▲L.A.거주 동문 장학기금 출연
- ③ 母校支援
▲教育研究財團 발족소위원회 구성, 설립절차 진행 중
- ④ 刊行事業
▲同窓會報 發刊: 5월 간호대학 출판부 특집호 발간, 배포
- ▲93년 초 회원수첩 출간 예정으로 작업 중

工科大學

- ① 主要行事
▲定期總會: 5월 10일, 모교 공대교수회의실, ①停年退任, 韓鳳熙(금숙), 金壽洙(심유), 安哲浩(도



◇농과대학동창회 임원들 식품개발연구원서 환영만찬회 개최.

農科大學

- ① 主要行事
▲學科同窓會 連繫會議: 11월 16일 호암생활관, 주요임부, 曺正화, 박만, 토론, 화과동창회와의 유대확인
- ② 母校支援
▲4월 30일, 李基俊학장에게 1천만원 지원
- ▲교수테니스대회, '92 건축전'에 후원
- ③ 刊行事業
▲92년도 會員名簿 發刊: 3만여 동문현황 수록
- ▲工大同窓會消息 發刊: 제13권, 제1호(1월), 제2호(4월), 제3호(7월), 제4호(10월) 발간
- ④ 其他
▲各學科 最優秀卒業生 施賞式: 2월 25일 모교 교수회관, 賞狀과 記念品 수여
- ▲新入會員 入會記念品 傳達: 2월 26일 기념 바를 열림 중

會員중심 親睦행사로 참여의식 높여 —獎學金지급 정착, 基金배가에 注力— 會報발행등 刊行업무 본궤도에 진입

- ▲鍾慶희장 留任, 副會長에 李殷雄동문 의 29명 選任
- ▲第2次 理事會: 11월 14일 韓國食品開發研究院, ①동창회 발전방안 토론, ②農畜水産 식품개발 연구실 설립 식품전시실 시찰
- ▲第14代 國會議員 當選 同門祝賀宴: 7월 7일, 호암생활관, 李榮文, 鄭昌鉉 동문 참석
- ② 母校支援
▲신록호보 발간, 학생 활동 보조금 1백만원 지원

美術大學

- ① 獎學事業
▲1·2학기 獎學金 지급: 동양학과 최혜원, 산업디자인과 서승현에게 등품금 수여
- ② 刊行事業
▲名簿발행을 위해 주소 변경자 불명확인 작업중
- ▲을연달 同窓會報 발행

法科大學

- ① 主要行事
▲定期總會: 5월 27일 프라자호텔 ①신입회원 환영 ②결산보고, 예산안 심의 ③琴琴協회를 비롯 한 회장단 유임 ④유공증 문 표창 ⑤고회, 회장을 맡은 1회와 9회동문에 기념품 증정
- ▲運營委員會 및 駱山獎學會 理事會: 4월 17일 롯데호텔 ①14대 국회의원 당선동문(金塔泰동문) 의 37명 축하 ②장학회 결산보고, 예산안 심의 ③鄭宗澤 이사장 유임
- ▲母校學長 離任祝賀 運動會: 6월 15일 호암생활관 ①徐元宇, 朴秉濂, 李구학장 이 취임식 ②의공 앞을 「法學研究棟」 시찰
- ② 獎學事業
▲1·2학기 駱山獎學金 지급: 작년보다 40명 증가한 1백70명에게 9천3백50만원 지급
- ③ 母校支援
▲學生活動지원: 나산제, 모의재판, 체육대회에 3백여만원 보조
- ▲을해달 완공예정인 「法學研究棟」 집기, 비품비로 7천만원 출연예정

師範大學

- ① 主要行事
▲定期總會: 5월 30일 프래지던트호텔 ①故林漢洙상임부회장 공로패 추서
- ② 91년도 회무결산보고 ③趙鏞樂동문 27대 회장으로 선출
- ▲大連席會議: 11월 21~22일 1박 2일로 山井湖水 유스타운, 시도지부장, 科동문회장, 직장동회장, 고문, 상임이사를 총망라한 대연석회의 개최
- ▲第15回 同門親睦 장기 바둑대회: 7월 17일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 ▲第9回 同門親睦 낚시 대회: 10월 11일 平潭 高機貯水池에서 개최 40여釣士 참여
- ▲第15回 테니스대회: 사대부고 테니스장에서 10월 25일 50여명이 참가 열띤전전
- ② 獎學事業
▲1·2학기 獎學金 지급: 각과 1명씩 총 15명에게 등품금 수여
- ▲各科同門會 淸涼會明鏡會 각과 獎學金 지급
- ③ 刊行事業
▲會報發刊: 4×6 배판 12면 隔月刊으로 년 6회 발행
- ▲名簿發刊: 크라운판 8백페이지 발간, 2만여동문에 배부

商科大學

- ① 主要行事
▲定期總會: 12월 29일 送年會 겸해서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개최예정
- ▲每月 會長團月例會開催
- ▲第14代 國會議員 當選 同門祝賀宴 겸 運營委員會: 4월 21일 힐튼호텔, 金在淳동문 등 10명의 당선자 참석, 성료
- ② 獎學事業
▲向上獎學會 장학금 지원

全龍鉉동문家

『각자 개척한 분야에 서 나름대로 기반을 다져 사회의 중견들로 성장한 자식들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全龍鉉(34년 商大卒)은 1912년 平北 定州(郭山)에서 漢學에 조예가 깊었던 부친(全基鉉)과 모친(金再鉉) 사이의 4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난 全龍鉉은 34년 京城 高商을 졸업하고 家業이던 製材業에 투신 38년 以北 製材界의 1인자로 각광받기도 했으나 해방후 북한지정에서 家産을 몰수당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1·4후퇴때 월남하여 58년 南洋木材로 재출발, 大韓製材協會 초대 이사장을 거쳐 鮮京顧問으로 木材사업부를 창설하였고, 東和合板 회

우리는 서울大家族



◇美國서 자식들이 마련한 칠순잔치에서

三代째 목재업을 家業으로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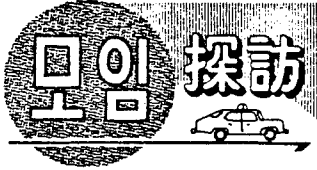
“어렵더라도 끝까지” 고집

자을 역임하는 등 ‘사양 길에 있던 合板業을 활성화시켜 단단한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면서 전성기를 회고했다. 35년 安惠善(91년 他界)씨와 결혼, 3남2녀를 두었는데 아들 삼형제와 두 사위가 모두 서울大人이다. 장남 裕澤은 64년 工

세계적인 전문가로 성장했다. 10월에는 해외석유개발협회 초청으로 來韓, 재미석유탐사개발 심포지움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차남 秉澤은 69년 商大를 졸업하고 미시간州立大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업가로 변신, Conwood Product Inc를 설립하여 미국과 미대륙을 잇는 木材貿易을 하고 있다. 셋째를 이인은 家業이 세 계로 진출한 것이다. 삼남 春澤은 70년 工大를 졸업하고 브라운대

아들 3兄弟, 두 사위가 모두 서울大人

會長·명예회장, 平北中央道民會 부회장, 鴨江會(영예회장·군수모임)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平北中央道民會 지도위원으로 있다. 또한 일찍이 54년부터 학교법인 保聖學團의 理事로서 장학사업에 정진해온 그는 현재 鶴山文化財團 理事, 新義州市學堂 理事長으로서 해마다 10여 명의 後學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 후배들도 맡은바 분야에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을 때라면서 자식들을 서울大人으로 키웠다”는 것에 큰 보람을 갖는 듯 했다. 동생대교가 내려다보는 한강변의 아파트에서 만난 全龍鉉은 8순의 나이를 잊게 하는炯炯한 눈빛, 단아한 모습에서 아직도 탄탄한 서울大人의 氣概를 읽을 수 있었다. <張國相기자>



ROTC同窓會

「ROTC동문회는 회원의 자격을 「현역복무를 마친 모교 ROTC 출신 예비역장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서울대 ROTCian」과 「리만의 근접성」인 패기와 자부심으로 국가와 민족애가 투철해야 한다」는 것.

61년 처음 창단된 이래 올해로 31주년을 맞는다. 모교 ROTC는 그간 배출해낸 졸업장교만도 1만여 명에 달한다. 해마다 각 방면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화상시절 집단훈련을



◇창단 31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재개를 다짐하는 동문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7천여명을 헤아리는 큰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국토방위의 간성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을 뿐 아니라 사회에 진출

창립총회 열고 活性化 이룩

7천여 회원들 유대감 높아

통한 남다른 우정과 소대생활의 공동체정신을 간직한 이들은 자연스레 사회에서도 ROTC의 이름아래 함께 모여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바람을 갖게 됐고 그 결실로 지난 7월 4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ROTC 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노련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석부회장으로 李東植(63년 法大卒)을 해방이사장을 임명하고 기존의 각 單大別 ROTC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또 期別로 1백여명의 이사를 선임, 조직의 기초정비를 마무리한 상태. 문에 치중해온 서울대에서 文武를 겸비한 청년장교출신으로서 뚜렷한 국가관, 책임의식, 리더십을 강조해온 이들은 그 정신에 걸맞게 사 회에 진출해서도 각 분 야에서 선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교 학군단장이 원자열실장 등이 포진해 있다. 財界와 學界에는 특히 많은 ROTCian들이 진출해 있는데 우선 財界에는 金泰球(대우자동차사장), 朴英珠(이전산업사장), 成夏鉉(한기화사장), 孫吉承(전경사장), 禹德相(쌍용양회사장), 蔡熙慶(삼미유 통사장), 許鎭奎(일진그룹 회장) 등이 있다. 學界에는 文昌奎, 朴在濤(모교교수), 沈慶久(성균관대교수) 등이 있는데 특히 모교재직동문들끼리 「발도르」 서울대학 군단동문회를 결성,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法曹界의 李相賢(수원지법성남지원장), 言論界의 金大中(조선일보논설주필), 朴炳濤(한국일보신문논설위원), 崔靑林(조선일보편집국장)(本報편집위원)도 자랑스런 ROTCian들이다. 현재 동문회는 모교내에 연락사무소(전화 88017843)를 두고 회원찾기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올연말 계획중인 신년교례회에서는 좀 더 많은 「일꾼」들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洪慶華기자>

난 18일 동창회를 방문한
李典九(64년 農大卒) 뉴욕
지부회장은 동창회 활성화
의 전거마련을 위해 이번
방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수석부회장으로 수
습을 마치고 올 7월 13대
회장으로 취임한李회장은
山大會에도 찬조 출연한
인물이다. 그에게 회장
으로서의 포부와 사업계획



『이번 歸國은 제 개인사
업도 사업이지만 동창회와
동창회장을 93년 1월
뉴욕동창회의 모임에 정식
으로 초청하기 위해 꼭
오시겠다는 확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지

李典九 뉴욕支部 동창회장



을 들어보았다.
『고생속에 기반을 다져
온만큼 이인사회의사의
목도모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분차이를 넘어서 모교와
친목활동을 벌일, 현재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 할
때입니다.』
李회장은 우선 名簿제작
과 同窓會報 年報版 제작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

“支部會館 마련이 가장 큰 꿈” 科學基金모금골프대회 연참일부

1천5백여명을 확보했다.
또한 미국현지동문소식을
추가해 현지동문소식을
재발행비·운송비를 충당
하고 연회비도 거둬 동창

회보 뉴욕판을 제작 배포
할 계획이다.
李회장은 또 현지 서울
대인은 이민 1세를 중심
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주한지
얼마 안돼 자립을 잡지 못
한 동문도 많다며 그 자
리들을 위한 獎學財團설
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장학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습
니까만 설립기반이라고 다
저를 까 합니다.』
13년의 역사를 갖고 있
는 뉴욕支部는 해마다 신
년모임과 분기별로 친목골
프대회를 개최해왔다. 李
회장은 이를 확대, 북가
을 골프대회를 각각 동창
회장비·모교총장배정골
프대회로 발전시키고 그
수익금과 과학기술기금, 발
전기금으로 손꼽힐 계획이

美태권도 代父 李俊九씨의 동생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
나보고 많은 도움말씀을
들여왔는데, 이이매우
희망적이라. 李회장은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았다
며 벌써부터 마음은 바빠
기만 하다.
(張國相기자)

동문의 적극참여 유도, 이
미 활성화 되어있는 것과
대화별 동창회를 전체 총
동창회 속으로 흡수, 발전
시키는 문제가 당면과제라
며 그대서 올 연말 총창
부회장의 방문과 연초 동
창회장의 방문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 * 김환준(91년 農大卒) • 전영희(92년 1시)
- * 이종재(89년 自然大卒) • 안미숙(92년 12월 11시)
- * 박인수(88년 師大卒) • 채옥준(92년 12월 2시)
- * 이재민(88년 美大卒) • 박정아(92년 12월 3시 30분)
- * 문병인(88년 農大卒) • 김현숙(92년 12월 11시)
- * 김해룡(88년 人文大卒) • 정경림(92년 12월 12시 30분)
- * 이광선(87년 師大卒) • 송지혜(92년 12월 2시)
- * 김상연(86년 法大卒) • 김은선(92년 12월 3시 30분)
- * 한길종(86년 師大卒) • 장성희(92년 12월 12시 30분)
- * 김원산(92년 保健大學院卒) • 김해선(92년 12월 2시)
- * 이창규(91년 人文大卒) • 이진아(89년 師大卒) 12월 19일 2시 30분
- * 김용준(86년 社會大卒) • 사명세(92년 12월 19일 4시)
- * 김지현(86년 農大卒) • 신정숙(92년 12월 12시 30분)
- * 최기봉(81년 工大卒) • 김은자(92년 12월 2시)
- * 전영훈(88년 社會大卒) • 함은희(92년 12월 3시 30분)
- * 최재훈(89년 工大卒) • 백영란(92년 12월 1시)
- * 오장현(85년 自然大卒) • 장혜정(92년 12월 2시 30분)
- * 김기영(88년 農大卒) • 이수경(92년 12월 1시)
- * 김해선(92년 農大卒) • 노미화(92년 12월 3시)
- * 김중규(87년 經營大卒) • 한인준(92년 12월 11시 30분)
- * 안성만(88년 音大卒) • 최지은(92년 12월 1시)
- * 소재원(89년 自然大卒) • 유영복(92년 12월 2시 30분)
- * 이재민(89년 農大卒) • 신재원(92년 12월 11시 30분)
- * 안준모(87년 自然大卒) • 박윤정(92년 12월 1시)
- * 노을규(92년 自然大卒) • 이선애(92년 12월 2시)
- * 권상현(92년 12월 2시) • 醫大卒 12월 27일 4시

同窓會館 冠岳廳

結 婚

揭示板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
동영촬영

년도 한국사회교육학회 총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출됐다.

▲金根培(82년 工大卒 母校) 11월 7일 한국과학사학회로부터 제 1회 한국과학사학회논문상을 수상.

▲李那華(85년 醫大卒) 11월 14일 서초구 암재동 영창빌딩에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

빠짐없이 會費내어 參與하는 同門되자!

年 1回 納付하시는 會費는 母校사랑과 同窓會 活性化에 參與하는 徵表가 됩니다. 特히 動靜欄을 利用하시는 同門께서는 會費納付에 술선히주시기 바랍니다. 來年부터는 會費 未納同門에게 不得已 同窓會報 發送을 中止합니다.

서울大學校同窓會

수정하여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위치한 30개국을 골라서 발송하였다. 호응도가 좋아서 매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머니 사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隔年制度 하였다.

서울대학교 본부가 관악산록이든들인음으로써 수목원의 기반과 관악산의 바위 덩어리보다 더욱 곧으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공원을 한 사람의 힘으로 제정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이다. 수도 곤단, 삼성산 및 대학본부가 지원한 가운데 수목원 일구만을 지키면 되었다.

관악계곡에는 물이 없는데 우물한 단점이었다. 따라서 남쪽 계곡을 막아서貯水池를 만들고 佛性寺입구에農가가 들어서고 계곡을 따라 관동노로를 쫓으면 비삼시의作戰道路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본부까지 5km 중 2km를開設하여 이의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3km는 현명한 판단을 바랄 수 없었다.

同窓會 1972 활성화의 지름길

이영삼 77	이영주 60	김재운 75	김재규 64	고병관 60	구기석 58	이희재 63	장기홍 57	김남규 69	김동건 69	유재용 63	유창종 69	이준경 39	임혜옥 39
이원영 63	이재규 53	김재운 72	김종진 69	권호석 73	권일중 57	장기홍 57	장명식 64	김배경 64	김병은 80	유홍섭 82	유태환 62	조종자 36	조정란 39
이인규 61	이정민 61	김준신 66	김준빈 53	김광호 75	김계란 56	전영애 73	전영환 55	김병학 66	김보섭 85	윤승준 64	윤변만 56	강문갑 66	강현재 77
이배구 65	이종진 63	김찬기 64	김찬수 89	김기섭 73	김덕근 71	전정환 71	정병철 75	김상우 59	김상기 67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재근 62	이종진 65	김태영 68	김한수 89	김공배 64	김문용 62	정학선 72	조기웅 7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종대 62	이종진 65	김호택 64	남광우 76	김문일 64	김문일 62	조동일 62	조상수 71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종수 84	이종진 65	노대우 73	류광희 67	김병기 66	김상권 61	조동일 62	조상수 71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창상 68	이창현 89	박노동 77	박영규 64	김상식 61	김상춘 72	진연하 74	지우선 58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철영 70	이철우 62	박영선 61	박용덕 88	김선영 60	김성배 63	김선하 74	지우선 58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태홍 75	이택순 56	백운호 69	서규선 75	김선행 61	김양주 61	최교준 72	최동우 65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현배 56	이형기 83	서승재 67	석호봉 67	김영달 62	김유영 56	최정식 56	최창환 62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흥규 77	이화영 61	신상경 65	소파봉 67	김이순 64	김창우 58	최해용 66	추국영 66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이희철 56	이후상 67	신원고 70	송기면 80	김재승 59	김정택 60	하태권 74	한바루 70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임노민 88	임대순 75	송문호 65	송명수 83	김중우 48	김주철 67	한영주 72	한우근 55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임철웅 70	임형택 81	송보현 68	송종익 59	김태욱 64	김태승 58	한전숙 49	현계순 60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장길성 72	장기섭 76	심상우 61	안문희 64	김형길 68	김호준 65	홍성배 58	홍성진 57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장민희 76	장운상 84	안희철 72	양왕모 74	김형길 68	김호준 65	홍성배 58	홍성진 57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장일환 76	장문희 57	임파섭 87	예재길 76	민경덕 63	민정현 50	홍성배 58	홍성진 57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장규안 72	장기현 50	오남진 74	오승환 61	박권삼 52	박도순 62	홍성배 58	홍성진 57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장대권 85	장보현 59	우종기 85	우영기 86	박문서 63	박인원 57	김소희 80	김철주 8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정신순 63	정보현 59	정준대 63	정종대 63	박문서 63	박인원 57	김소희 80	김철주 8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정재우 87	정종대 63	조동성 79	조맹영 64	박문서 63	박인원 57	김소희 80	김철주 8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조동호 79	조맹영 64	조성환 87	조성래 63	박문서 63	박인원 57	김소희 80	김철주 8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조성환 87	조영일 67	조용환 82	조용훈 89	박문서 63	박인원 57	김소희 80	김철주 8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조희연 71	조진 86	주진 86	진남국 73	박문서 63	박인원 57	김소희 80	김철주 83	김상우 59	김상철 70	이근재 76	이규환 61	강호철 73	고두현 76
주원영 86	차정식 69	차병진 83	차정현 59	박문서 63	박인원 57								

▲이영택 69	▲이승영 61	▲이성훈 71	▲이규찬 59	▲이건삼 64	▲유용찬 65	▲유병선 61	▲유선주 65	▲우홍식 51	▲오세주 59	▲오기화 63	▲안병준 66	▲신달섭 73	▲신용구 57	▲손희규 55	▲설 유 71	▲서원호 65	▲서병민 70	▲백나민 64	▲박태주 68	▲박문식 66	▲박덕신 63	▲문현상 65	▲남이현 67	▲나진원 71	▲김현근 67	▲김종해 55	▲김재영 66	▲김승웅 68	▲김성호 71	▲김상한 58	▲김병덕 58	▲김근태 72	▲곽지용 63	▲강창익 75	▲강식민 69	▲강 욱 60	▲이영세 46														
▲이승원 64	▲이승재 62	▲이수귀 62	▲이병호 63	▲이광룡 73	▲윤상규 61	▲윤병길 68	▲유권상 75	▲우원식 61	▲오상봉 74	▲안성국 64	▲신형선 63	▲신용태 63	▲신승하 68	▲손태일 72	▲서해람 61	▲서영석 66	▲변상진 63	▲배규성 54	▲박장준 71	▲박문규 71	▲민병대 64	▲문영지 59	▲남종규 75	▲김홍배 67	▲김종민 69	▲김재관 65	▲김연기 64	▲김수행 65	▲김진호 52	▲김병수 66	▲권영재 67	▲고용화 70	▲강전형 60	▲강서규 59	▲홍선철 48																
▲김중선 63	▲김정원 53	▲김의식 55	▲김영남 66	▲김상렬 50	▲김득구 52	▲김기현 56	▲권기호 72	▲권순경 62	▲권순희 69	▲고화자 67	▲이재현 48	▲우원식 48	▲노태선 48	▲임중수 44	▲김방주 39	▲김창수 39	▲김원근 65	▲김창수 68	▲박재영 72	▲소진규 68	▲오석문 60	▲이상진 55	▲이한일 66	▲정자영 66	▲추찬용 67	▲홍재창 55	▲황인하 58	▲최성호 61	▲조성기 58	▲이관철 56	▲이준성 53	▲안석길 55	▲서정순 59	▲박영준 55	▲명수남 59	▲나길현 65	▲김창수 68														
▲김화자 55	▲김태욱 73	▲김준호 60	▲김승윤 57	▲김재황 79	▲김원석 60	▲김삼영 62	▲김승배 75	▲김영준 59	▲김기중 75	▲권영대 59	▲곽정수 59	▲조인홍 48	▲이윤중 49	▲심상혁 49	▲권한표 49	▲이성구 35	▲구원근 65	▲김창수 68	▲박영준 55	▲소진규 68	▲오석문 60	▲이상진 55	▲이한일 66	▲정자영 66	▲추찬용 67	▲홍재창 55	▲황인하 58	▲최성호 61	▲조성기 58	▲이관철 56	▲이준성 53	▲안석길 55	▲서정순 59	▲박영준 55	▲명수남 59	▲나길현 65	▲김창수 68														
▲민용기 82	▲민경업 77	▲문동진 50	▲김희섭 83	▲김원희 62	▲김연우 88	▲김수진 85	▲김동현 87	▲권영조 62	▲권무일 72	▲이진우 50	▲서정후 41	▲장동욱 41	▲김재욱 50	▲이윤진 50	▲김세현 41	▲김재욱 50	▲김관근 65	▲김창수 68	▲박재영 72	▲소진규 68	▲오석문 60	▲이상진 55	▲이한일 66	▲정자영 66	▲추찬용 67	▲홍재창 55	▲황인하 58	▲최성호 61	▲조성기 58	▲이관철 56	▲이준성 53	▲안석길 55	▲서정순 59	▲박영준 55	▲명수남 59	▲나길현 65	▲김창수 68														
▲민현기 51	▲민양기 71	▲문신용 74	▲나정호 87	▲김정규 76	▲김영준 52	▲김준배 84	▲김선희 78	▲권오상 78	▲권영길 55	▲강석철 64	▲이윤진 50	▲김재욱 50	▲이윤진 50	▲김세현 41	▲김재욱 50	▲김관근 65	▲김창수 68	▲박재영 72	▲소진규 68	▲오석문 60	▲이상진 55	▲이한일 66	▲정자영 66	▲추찬용 67	▲홍재창 55	▲황인하 58	▲최성호 61	▲조성기 58	▲이관철 56	▲이준성 53	▲안석길 55	▲서정순 59	▲박영준 55	▲명수남 59	▲나길현 65	▲김창수 68															
▲문명용 84	▲김훈재 85	▲김하준 75	▲김종복 69	▲김정우 67	▲김일식 80	▲김원표 74	▲김영수 68	▲김영수 89	▲김영철 83	▲김진석 65	▲김승기 80	▲김봉환 85	▲김봉환 85	▲김대수 86	▲김기창 71	▲김각규 78	▲김재신 85	▲권기홍 84	▲곽난희 88	▲고성희 79	▲정나현 50	▲유행웅 64	▲유진영 86	▲이오규 79	▲이효성 76	▲이호선 76	▲이준우 80	▲이선재 51	▲유혜정 88	▲유정호 89	▲안선영 89	▲서우석 64	▲배승택 70	▲박용수 81	▲김운수 60	▲김동수 79	▲김관근 65														
▲문일환 71	▲목성규 87	▲김효준 86	▲김재현 85	▲김정태 72	▲김재덕 74	▲김은정 89	▲김영수 83	▲김영수 58	▲김영수 53	▲김시웅 86	▲김석영 84	▲김봉구 84	▲김대수 86	▲김기창 71	▲김각규 78	▲김재신 85	▲권기홍 84	▲곽난희 88	▲고성희 79	▲정나현 50	▲유행웅 64	▲유진영 86	▲이오규 79	▲이효성 76	▲이호선 76	▲이준우 80	▲이선재 51	▲유혜정 88	▲유정호 89	▲안선영 89	▲서우석 64	▲배승택 70	▲박용수 81	▲김운수 60	▲김동수 79	▲김관근 65															
▲김일관 70	▲김중권 67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황성진 85	▲하중규 77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77	▲박용희 65	▲신승배 65	▲유광호 72	▲윤우경 73	▲이남현 75	▲이소라 83	▲이효수 84	▲정광택 77	▲조관형 88	▲한우근 48			
▲김정현 85	▲정홍진 78	▲임재원 63	▲이창원 75	▲이명호 78	▲윤병구 73	▲유광호 72	▲방영준 81	▲박복만 71	▲김상규 70	▲고병석 82	▲김광윤 78	▲김광현 77	▲문국현																																						

新刊

■女王 누까다

-崔俊浩譯(56년 法大卒·法務士)
7세기경 일본의 巫女이자 歌人이었던 누까다(額田)를 주인공으로 하여 펼쳐지는 정치드라마. 이노우에 야스시의 원작으로 기구한 여인의 역정을 그리고 있다. (382쪽·4천5백원·도서출판세대판)

■위대한 컴플렉스

-李揆東著(56년 醫大卒·이규동 신경정신과원장)
역사적 인물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행위와 내면에

5백원·해선출판사판)

■本民과 東明社會

-文永克著(69년 法大卒·關稅士)
오늘날 부도덕과 이기주의로 황폐해지는 사회를 극복하는 한편 국민들의 사상의 구심점으로 삼을 대안으로서의 「本民」사상을 역설하고, 저자가 주창하는 東明社會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운동을 피력. (77쪽·3천원·마이코인터내셔널판)

■알기쉬운 미국의 생활경제

-金昌洙著(71년 經大院卒·공인회계사)

현재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가 뉴욕한국일보에 11년간 연재했던 내용을 묶은 책. 미국 移民들이 현지에서 부딪치



잡채해 있는 심리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 역사적인 여성, 예술가, 조선·고려시대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356쪽·5천5백원·문학과현실사판)

■자녀를 위한 기도

-姜泳勳著(69년 法大卒·해군사관학교 敎授)
아버이로서의 자녀사랑을 신앙에 의거해 그려낸 詩集 「사랑의 하나남께」드리는 기도의 형식을 빌려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하기를 바라는 父情을 담고 있다. (228쪽·3천

은 가정의 재정계획과 투자의 바른 길을 비롯, 미국의 稅制와 비즈니스에 관해 조언. (\$18·318쪽·가나인인쇄판)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1

-趙錫俊著(77년 自然大卒·KBS 기상캐스터)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날씨에 관해 과학적으로 풀이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읽어 나가는 동안 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얻도록 쓰여졌다. (313쪽·4천8백원·해냄출판사판)

公演

■宋姬松 첼로 독주회

-12월 1일 예술의 전당

85년 모교音樂大會 나와 오스트리아 비인국립음악대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최우수졸업한 宋동문은 중앙악원에서는 처음으로 솔리스트 최대의 영예인 Wurdigangs Preis를 받은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로카텔리를 비롯 브람스, 베버를 연주한다.

■아울로스 목관 5중주단 연주회

-12월 4일 예술의 전당

중견 목관주자들로 구성된 이들의 세번째 정기연주회. 金泳律(80년卒·Hr) 李昌洙(71년卒·Cl) 金亨燮(Ob)등등이 Danzi, Milhaud, 김성기, Francaix를 연주한다.

■마드리실내악단 연주회

-12월 9일 예술의 전당

朴敏鍾 前음대학장의 지휘로 열리는 16회 정기공연. 李活(83년卒·

Vn) 金善蓮(74년卒·Ob)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마르첼로의 오보협주곡 C단조를 비롯, 바하등이 연주된다.

■金惠淑 피아노 독주회

-12월26일 예술의 전당

현재 美韓연대 교수로 재직중인 金동문은 69년 모교音樂大會를 거쳐 피아니스트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했



◇김혜숙 피아니스트

다. 이번 귀국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환상곡 C단조를 비롯, 베버, 슈베르트, 그리프스를 연주한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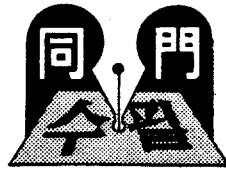
-12월10일 예술의 전당

89년 창단 이래 80여회의 공연을

나 10여년 전 옛날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얘기를 「나의 사랑 나의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바 있다. 문리대를 극찬하는 내용이라서 타대학 출신들은 대단히 아니꼽게 반응했던 책인데, 동문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다. 지금도 동문중에는 나에게 그 책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사실 그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5·17정변에 휘말려 투옥생활 끝에 공여지책의 호구책으로 원

있던 대학다방에서 커피까지 마셨다고 했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문리대 사람이로군」하고 생각했었다. 문리대 출신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文理大」病



金東鎭
(70년 文理大卒)
小說家

고를 출판사에 넘겼었는데, 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신문사에 문리대 동문들이 많다 보니 시쳇말로 「매스컴도 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꽤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자신이 다녔던 대학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মানুষ이나 지식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서 속스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이 요즘도 동문끼리 어울리면 문리대 얘기가 약방 감초처럼 끼게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文理大病이 아닌가 싶다.

얼마전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이민갔던 여자동창이 귀국해 모처럼 동창끼리 어울렸었다. 그 여자가 이민 후 처음 귀국했던 것은 마침 나의 그책이 막 출판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때도 연락이 와서 동창끼리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광고를 보고 이미 책을 사보았다고 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이미 동송동의 옛 문리대 교정에도 가 보았고 그때까지 문을 닫지 않

서울을 떠나 지방에 가 있는 동문들도 서울에 오면 동송동의 옛 교정을 찾는데 하물며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때 나는 무심코 학교에 가보았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그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이지요」하고 대답했다. 내 물음이나 그 대답은 타 대학 출신들은 이해 못 할 성질의 것이지만, 우리는 학교라하면 동송동 옛 문리대 터를 일컫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文理大病 현상이다. 도무지 잊지 못하

고, 잊으려 하지도 않고, 마치 문안인사처럼 당연히 나누는 그런 얘기는 타대학 출신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여자 다섯, 남자는 나를 포함해서 두명 등 모두 일곱명이 모였는데, 화제는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는 또 옛 문리대 시절로 돌아갔다. 교수얘기, 소식을 알 수 없는 동창얘기, 선배얘기 등등으로 옛 문리대 시절 얘기가 끝없이 이어졌었다.

나는 얘기를 들으며 줄곧 학창시절을 생각했고, 중년이 된 내 앞의 여자들의 옛 모습도 떠

올려 보았다. 그때는 모두 심심했던 20대 처녀들이었지만, 이젠 늙은 흔적을 지울 수 없는 40대 중반 아줌마들, 세월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는 농담으로 「왜 이렇게 벌써 아줌마들이 되었나」고 놀렸는데, 그중 하나가 「덕도 아저씨가 됐는데, 필」하고 받아넘겨 우리는 한바탕 웃어댔다. 그리고 여자들은 얘기를 하다가도 내 책을 옆두에 두고 「잘못하면 책에 나오니까 조심하자」며 깔깔쌌다.

그런데, 한가지 고백하자면 나는 이런 동창모임 끝에는 문리대 향수병에 걸려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버릇이 있다. 웬지 자꾸자꾸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文理大病이 아닌지. 문리대 출신 어느 교수는 이런 나에게 하루 빨리 문리대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굳이 그 「문리대」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아련한 추억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행복임이 분명하므로

해운 전문직업연주단체의 12회 정기연주회. 朴治龍(86년卒) 등등의 지휘로 Buxtehude, Charpentier, 모차르트, 하이든외에 캐롤송도 들려준다. 반주는 梁起燾(88년卒) 동문이 이끄는 모테트스트링 앙상블.

■朴妍姬 피아노독주회

-12월11일 예술의 전당

81년 모교音樂大會 졸업후 '美韓실바니아주립대를 전액장학생으로 수학

한 朴동문의 세번째 독주회.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를 비롯, 브람스, 마틴이 연주된다.

■鄭至惠 피아노독주회

-12월15일 예술의 전당

모교音樂大會(88년卒)를 거쳐 美미시간주립대를 다니면서 음악교사전국협의회 주최 콩쿨우승을 비롯, 현지의 여러콩쿨에서 수상경력을 지닌 鄭동문의 이번 공연에서는 스칼라티, 알베니츠, 베토벤, 바르톡이 연

주된다.

■코리아첼메오케스트라 연주회

-12월20일 예술의 전당

申弘均(66년卒)등문이 지휘를 맡고 崔사나(80년졸) 등문이 악장으로 있는 이들의 7회 정기연주회. 孫英惠(78년卒·Pf)등문의 협연으로 Telemann, 코렐리, 모차르트를 비롯, L.앤더슨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주한다.

母校



자연대 碩士과정 무시험 도입

자연과학대학(학장 權肅)은 현재 일부 단과대학에서 시행중인 박사과정 무시험진학제도를 확대해

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이와같은 증원은 지난

전국 인문·사회·사범계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한 이번사업은 19세기말 이후 1세기동안의 국내외의 知的 文化的 遺産을 총망라하고 재평가하는 것으로 과제 규모나 연구비 액수면에서 국내인문계 초유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계 高級人力 수요에 부응

自然大·工大등 2백20명 증원돼

'93 신입생 모집 要綱확정

지난달 4일, 내년도 모교 신입생 모집要綱을 확정

다. 2백20명이 증원된 4천9백5명(이)으로 하는 것을

결자로 한 '9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

다. 증원된 2백20명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대가 20명(계산통계학과 전산과

화정공통계화전공,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각 5명), 공대가 2백명(증원된

다. 한편 내년도 입시에서는 고교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학령고사 실업선생과복중 '정보산업'이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된다.

장학금 受惠率 57%

2학기 현황

1만5천명에 52億지급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지급현황

장 학 금 종 류	대 학		대 학 원		합 계	
	수혜자수	금 액	수혜자수	금 액	수혜자수	금 액
(교내 장학금)						
면제장학금	7,702	2,343,895	2,527	646,615	10,229	2,990,510
법정면제장학금	838	177,406	44	9,152	882	186,558
봉사장학금	200	106,000			200	106,000
학자금 대여	327	148,070			327	148,070
조수금여장학금			783	274,050	783	274,050
소 계	9,067	2,775,371	3,354	929,817	12,421	3,705,188
(교외 장학금)						
(제)서울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	208	119,756	301	158,917	509	278,673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1,676	1,024,473	313	255,809	1,989	1,280,282
소 계	1,884	1,144,229	614	414,726	2,498	1,558,955
합 계	10,951	3,919,600	3,968	1,344,543	14,919	5,264,143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된 미사리에서는 신성기시대, 무문토기시대, 원삼국시대, 백제시대이르는 각종 토기와 석기, 철기류와 토제품들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확인작업을 지속하고 있어 발굴유물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발굴에 의해 경자유구(발)가 한국최초로 발굴확인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정해 그쳤던 고대농경연구를 비롯, 농경발달사 및 제반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行政연구소 新設

정보화시대 대비 行大院 부설로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전문연구기능을 갖춘 정보-대학원대학연구소가 신설된다. 행정연구소는 94년 1월 1일 학원부설로, 행정대학원 내에 신설된다. 행정연구소는 정보통신정책연구(가칭)도 개설해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3년간 지원되는 47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6천3백평의 부지에 학산회의실과 전자정보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추고 대학의 사회과학 전문연구인력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신프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정보통신정책개발 △공공데이터베이스 체계구축 △지방대 지역정보센터와의 연계등을 추진하며, 연구소내에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소(가칭)도 개설해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의 9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이 집계되었다. (現況別表) 이번학기장학금 지급총액은 52억원이며, 수혜학생수는 학부 1만9백51명, 대학원생 3천9백68명, 합계 1만4천9백19명으로 이는 등록학생수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